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 종가와 같은 1,195.50원에 마감

9일 환율은 전일 종가와 같은 1,195.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00원 하락한 1,192.50원에 개장했다. 리스크온 분위기를 반영하며 갭다운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하락세를 유지하며 1,190원대 하향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결제물량 유입 등으로 1,191원대에서 하단이 지지되었다. 오후 들어 위안화가 강세 폭을 줄이자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제 물량과 달러 매수요구가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낙폭을 모두 회수하며 전일 종가인 1,195.50원에 마감하였다. 시장평균환율은 1,194.5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114.27원이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92.50	1197.00	1191.20	1195.50	1194.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11.59	1116.05	1109.77	1113.9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7	-1.31	-3.25	-7.58
결제환율(수입)	0.12	0.21	-0.48	-2.18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둔화에 1,190원대 후반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90원대 후반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95.50원) 대비 1.30원 상승한 1,196.8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짐에 따라 최근 리스크온 분위기가 둔화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6만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에서는 사망자와 입원환자가 사상 최고치로 급증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스페인에서도 지난 5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의 재유행 공포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선호심리 둔화되며 환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국내 시장이 코로나19 이슈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는 점 및 대외 재료보다는 수급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1193.00 ~ 1199.33 원

예상 범위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1.08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0원 ↑
	■ 美 다우지수 : 25706.09, -361.19p(-1.3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2.4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29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